대구종친회 2012년 화합한마당

대구종친회(회장 권순호)는 지난 5월6 일 오전11시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틱 홀에서 족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 합잔치를 했다.

이날 권상주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 례, 시조묘소 망배 후, 권순호회장이 임원 소개 후 대구종친회 발전과 사회봉사 활 동으로 종친회의 위상을 높인 권종길(운 영위원, 복야공파 34세), 권태순(감사, 복 야공파 36세), 권기현(운영위원, 부정공 파 36세)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권순호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영화 • 태갑고문 의 격려사가 있은 후 권기범사무국장의 시조유래에 대한 보학강좌가 있었다. 이 어 4월11일 대구북구갑에서 당선된 권은 희의원(새누리당) 총선에 지원해 준 족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.

2부행사에 들어가 권세나 대한가수협 회 대구지부장의 사회로 권영수 청장년 회장, 청년회원들이 준비한 경품추첨과 권선미 지방가수의 경연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특히 권은희 국회의원 당



△대구종친회 화수회에서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.

선인은 노래와 춤으로 족친들과 어울려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했다.

이날 권정달대종원총재의 화환이 접수 되었으며, 권원강(주)교촌치킨회장의 성 원에 감사를 드리며, 또한 이날 행사를 위

해서 성원 • 격려해준 대구족친여러분과 2부행사비를 부담한 권영수회장 및 회원 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.

〈권기범 사무국장〉

釜山宗親會會長團會議

부산종친회는 지난 4월 26일 목요일 오 후 6시30분 연산교차로 해암부폐 8층에서 회원 55명 참석하에 회장단 회의를 가졌

이날행사는 권정수 부회장의 사회로 개 회선언에 이어 권재혁 사무국장의 경과 보고 후 권길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권종갑고문 권영한 고문 권재목명에회장 고문, 자문위원, 부회장 등 회장단회의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 며 임진년 신년하례시 금년 정기총회는

좀더 유익한 총회가 되도록 회장의 포부 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회 일정 및 장소 는 적십자회관 대강당으로 6월3일로 예약 되었으며 총회시 참석할 인원동원과 행 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3 차 연임 하다보니 타성에 젖어 원만치 못 할까 우려되는바 회장단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청원하면서 인사 말을 마치고 기타 토의에 들어가 총회 일 정 및 제반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권영한 고문의 낭중공 신도비 이전

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였 고 오는 5월 대종원 총회시 좋은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.

4월29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청,장년 체육대회에 관한 설명은 권영흥 청년회 장의 설명이 있었고 종친회에서 많은 지 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많은 참석을

폐회선언을 하고 저녁 식사에 들어갔

〈권재혁 사무국장〉

영덕종친회 제56차 정기총회

지난 5월12일 오전 10시30분, 영덕종친회(회장 권병윤)는 영덕 종친회관에서 권종문, 오철, 수운 고문 등 족친 6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영덕종친회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.

권성덕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권신기 사무국장의 사 회로 권오철 직전회장 분회장 권수복, 직전총무 권무씨에게 감 사패를 수여했으며 권병윤회장의 인사말과 권오섭 전 영덕군의 회의장의 축사가 있었다. 권위달 감사의 감사보고, 사무국장의 경과, 결산보고,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권병윤회장의 추천으로 권강원, 영종, 오중씨를 새 임원으로 선임했다. 회의를 마치고 2 부행사로 경품권 추첨과 노래자랑으로 일가간에 족의를 더욱 더 두텁게 하는 가운데 산회했다.



희망 하였다.

△영덕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권병윤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창녕종친회 제75차 정기총회

창녕종친회(회장 권화성)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 창녕 도리원에서 족친 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.

권광규총무의 사회로 권화성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안동권 씨 화수회가 안동종친회로 중앙종친회 와 대종회간 통합해 안동권씨 대종원으 로 명칭이 바뀌었고, 경북 청도에 있던 아 시조 단소도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(능곡) 시조묘소 부근으로 이단 하였음을 고지 하였다. 이어 권유관 경남도의회 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임원개선에 들어가 권화성회장이 유임되었다.

기타 토의로 족친간에 족의를 더욱 더 두텁게 하는 가운데 산회했다.

〈권광규 총무〉



△권화성회장이 창녕종친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영주종친회 제56차 정기총회

영주종친회(회장 권영창)는 지난 5월1일 오전 11시, 영주종친 회관에서 권상목, 오걸, 종봉, 무탁, 고문 등 족친 5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.

권오국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무탁 직전회장, 권태호 청년회원 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권영창회장의 인사말과 권상목고문 의 축사가 있었으며 권오덕감사의 감사보고 사무국장의 경과보 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.

권오성 외 고등부 6명, 중등부 7명에게 장학금 전달이 있었으 며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기타토의로 페회했다.

〈권혁세 기자〉



△권영창 영주 종친회장

안동권씨청장년체육대회

광주청장년회 주관 광주첨단 체육공원에서



좌상부터 권정달 총재, 강운태 광주광역시장, 권충화 광주종친회장, 권시현 광주청년회장 등이 격려사 및 축사를 하였다.



〈1면에 이어서〉

이날 식전행사는 7인조 재즈밴드의 주 악으로 대회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으며 이어 MBC광주방송국 이순철 아나운서의 진행에 따라 개회식이 진행되었다. 권시현 대회장의 감사패가 지난 23회 대회, 영천 청년회 권병혁 대회장, 권영철 사무국장, 권중근 재무국장, 권세록 준비위원에게 전 달됐다. 권시현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서 그간 23회 동안의 청장년 전국체육대회가 비 호남권에서 개최 되어 왔으나 오늘 이 곳 광주에서 개최되게 된 것은 매우 각별 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다 음 권동희, 권선앵 선수대표의 선서가 있 었고 선수단 퇴장 후에 식후공연으로 비 보이애씨트 브레이크댄스와 권해리 밸리 댄스가 화려하게 펼쳐졌으며, 기획행사로 서예가 2명이 직접 붓글씨로 '가훈'을 써 주어 가정이 귀하고 중함을 일깨워 주기 도 했다. 이어서 경기에 들어가 열전 끝에

△공굴리기:1위(청주, 청원청장년회) 2위 (대구청장년회) 3위(예천청장년회) △줄 넘기:1위(영천청장년회) 2위(예천청장년 회) 3위(청주, 청원청장년회) △승부차기:1 위(예천청장년회) 2위(강릉청장년회) 3위 (대구청장년회) 등이 입상하였다. 그리고 이날 오후1시에 23개팀 지역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시현 광주청장년회장이 청장년 협의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해 (1)체육대회 유치활동 및 결정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 는 개최지 청장년회장단 회의에서 이루어 지며 (2)체육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. 이날 결정은 2013년 25회 개최지: 영주 2014년 26 회 개최지: 대전을 확정하고 2015년 27회는 청주, 청원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다. 오 후 2시부터 권혁문 외 1명의 색소폰 연주 로 노래경연과 우연희 초대가수의 출연으 로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각 지역 팀의 출 연신청을 받아 노래자랑 대회가 흥겨웁게

펼쳐졌다. 또한 이날 권정달 총재는 내빈이 참석한 리셉 션에서 권시현 대회장과 관 계 임원들에게 대회 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으며 더 불어 지역참가팀을 돌면서 격려했다.

■종합성적 △종합우승: 예천청장년회 △준우승: 대 구청장년회 △3위: 청주,청 원청장년회 △응원상: 합천 청장년회 △입장상: 안동청 장년회 △노래자랑 (대상):

안강청장년회(권호택) 오후3시30분부터 일족모두가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선수 전체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디 스코 파티를 했으며 이어 종합시상과 행 운권 추첨, 권시현 대회장의 총평이 있었 으며 이어서 국악인의 리드로 선수전체 가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면서 강강수월



△권동희, 권선앵 선수대표가 선서하고 있다.

래로 한마당 뒷 풀이를 했다. 이번 대회 를 통해서 전국의 족친들이 더욱더 우의 를 돈독히 하고 소통을 통하여 광주와 유 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며 상부상조 하 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

〈권시현 광주청장년회장, 사진 권 범준 기자〉



△축구대체경기인 P·K 승부차기로 진행되었다.



△제2부 노래자랑대회(원내:서울청년회 권오준 총무 및 일행)



△공굴리기 경기 모습.